

불자 세상보기

부자가 한국에서 존경받으려면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돈독은 무섭다. 돈의 독성이 매우 강하다는 말이다. 그 돈의 독성을 풀고 중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탐이라고 한다. 탐이란 독의 독성을 없앨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이 탐이라는 중화제, 해독제가 없는, 독성으로 작용하는 돈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우리 한국의 부자들 가운데 열에 여덟은 자수성가형이 아니라 유산 상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그 사실에 대한 대표적인 증거가 아닐까 싶다.

대대로 부자로 지내면서 부자로서 지켜야 될 금도를 배우나간 그런 이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몇 대를 이어 온 경우 최부자의 예도 있다. 그가 문은 부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철저히 계승하면서, 그리 오랜 동안 부자의 위치를 지키면서도 세인들로부터 증

오와 질시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은연중 존경을 받아 왔던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우선 유산 상속의 시발점이 되는 부자들이 존경을 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 오지 못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남들이 모두 인정할만한 정당함과 노력으로 부를 이루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부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거의 없는 우리의 현실은 그들의 치부과정 자체가 그리 뚜렷하지 않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 정경유착이라든가 문어발식 기업운영, 하청업체와 노동자에 대한 착취구조 속에서 치부가 이루어진 측면이 많은 것이다.

그렇게 생성된 부를 계승한 이들이 정말 부자로서의 뚜렷한 도리를 제대로 배웠다고 믿을 수 있을까? 또 배운 상속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물어 들어간다면 상속으로 부자가 된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이 정말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한국 몇 위라는 데 랭크가 될 정도의 부자가 아닌 경우에는 더욱이 그 문제가 쉽게 드러난다.

땅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그 지역이 개발이 되어 부자가 된 사람들, 투기를 통해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자의 금도를 제대로 알 것인가? 아니면 그 상속자가 제대로 알 것인가? 그런 부자들은 대부분 돈 독의 해독제를 전혀 지니지 못한, 돈 독에 중독된 사람들일 수밖에 없고, 그 돈 독이 그들을 병들게 할 뿐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그런 부자들의 비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높다는 데 있다. 그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이요, 우리 사회가 강고한 신분의 벽으로 가로막힌 사회가 되어가는 증거이기도 하다.

자신의 노력에 의해 신분상승의 기회가 막힌 경직된 사회가 되어간다는 것이다. 단지 최상층의 부자만이 그렇다고 말하면서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최상층의 벽은 대대로 이어지면서 견고하게 굳어져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계층에게도 연동된다. 최상층을 둘러싼 차상위 계층으로, 그 다음 계층으로... 결국은 경제적인 신분이 연하게 고착되고, 양극화로의 진행이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일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먹구름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걷어내기 위한 노력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게 결정되고 말 것이다.

우선은 부자들이 정말로 부자답게 살아가도록, 그럴 수밖에 없도록 국가적인 힘이 개입해야 한다. 국민의 여론을 배경으로 부자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물론 부자들을 무조건 나쁘게 보려는 시각은 매우 위험하다. 정당하게 얻어진 부에 대한 존경심, 정말로 바르게 쓰이는 부에 대한 찬탄을 일으켜야 한다. 그 반면 잘못되게 축적된 부, 잘못 쓰이는 부에 대한 엄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즘 그릇된 방식으로 쌓이고, 잘못되게 사용되는 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마녀사냥과 같은 흥분으로 달아오르지 않도록 경계한다면, 부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우리 한국의 미래를 세우나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

社說

이주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지난해 말 경남 양산의 이주여성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다문화축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일이 있었다. 다문화사회를 위한 지역 축제들이 오히려 이질감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소외시키기까지 한다면 아예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까지 팔시받고 차별당해 오다 참다 못해 터져 나온 그들의 분노는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아직 폐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다. 외국인 주민들은 이제 어엿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기에 다문화 사회를 포용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물론이고 지역 발전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현실에서 지난 6월 30일 조계종 자생과쇄신결사추진본부가 서울 조계사에서 개최한 '이주민 불자들과 함께하는 시민초청 무차대회'는 불교가 이주민 정책에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다. 이날 무차대회에는 미얀마,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베트남 등 8개국 불자 이주민 350

명이 초청돼 공감토크콘서트, 장기자랑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직접 행사에 참여해 세계인들이 서로가 의지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꿈꾸신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승 스님은 사부대중은 이날 무차대회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 곳곳의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살아가는데 발벗고 나서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사실 이주민들은 동정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국민이자 시민으로 당당하게 대접받고 싶어 한다.

그동안 이주민들은 차별과 혐오, 차가운 시선만이 그들을 괴롭혀 왔다. 심지어 자녀들은 학교에서도 집단따돌림에 시달리는 등 이중삼중으로 고통 받고 있다.

우리 불교계부터라도 일회성 행사에만 연연해 하지 말고 그들이 진정 바라는 소통과 화합, 존중과 배려, 그리고 꾸준한 관심 등을 실천하는데 앞장서자.

철야정진 인기 이유 있다

한국의 행복지수는 OECD 36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이며,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는 환자의 수는 2010년 기준 231만 명이다. 이는 2004년에 비해 1.5배 증가한 수치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행복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스털린 역설'을 그대로 보여준다. 현대인 더 이상 '재움'으로는 행복감과 성취감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도심 사찰이나 시민선원 등에서 진행되는 정기적 철야정진이나 여름 특별 정진은 무더위를 피하고 자신을 비워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실제로도 이들 철야정진 프로그램은 바쁜 일과로 자주 수행하기 힘든 불자들이 일반인 사이에서는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바쁜 현대인들이 참선과 문화행사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상에 매몰된 현실에서 참 나(我)를 돌아보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는 수행 프로그램들이 대체됨 때문이다. 실제 프로그램의 종류도 철야 참선이나 1000배, 다라니 독송 등 다양하며 이를 통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수행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여름철 철야 정진은 프로그램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서울 김상사와 능인선원 등은 한 달에 한 번 철야정진을 실시하며, 보림선원 서울·부산선방, 조계사 선림원 등은 특별히 기간을 정하고 철야정진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화계사는 매주 주말 철야참선으로 유명하며, 부산 해운정사도 유사한 정진을 진행하고 있다.

행복의 주체는 '나 자신'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전국 사찰에서 진행되는 철야정진은 나의 본래면목을 찾을 수 있는 보물창고이다. 올 여름 사찰 철야 정진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발언대

비구니 호계위원 진입 논란

조계종 중앙종회 제194차 임시회가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의 퇴장에 불참하는 조우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 비구 스님이 비구니 스님을 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와 관련해 불교재가여성단체,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구니 호계위원 진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비구니 호계위원 진입은 당연한 시대 변화



임진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운문사주지

현종법을 어긴 자를 심판하는 호계위원과 종헌준법 심판기구인 법규위원회의 비구니들의 진입을 비구니들은 요구했다. 비구니와 관련된 사안은 비구니가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이는 비구니 승가 종단 운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종단 발전에 일조할 수 있다는 애증심의 발로이기도 했다.

사실 사찰 문화와 풍토를 거부하고 배척할 생각은 없다. 다만 종헌 준법 안에서 이뤄진 제도를 시대에 맞게 조금씩 변화해 나가자는 취지였다. 사실 비구니 스님들이 호계위원으로 진입한다고 해도 비구 스님이나 사미를 갈마하고 심사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대등한 위치에서의 호계위원이 아니라 비구니를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비구니 호계위원을 원하는 것이다. 가능하면 비구니 스님들을 담당하는 호계원의 구성도 필요하다. 비구니는 비구尼를 통해 탄생하는 만큼 갈마와 심사역시 비구니 스님이 담당하는 것이 맞다.

일부 비구 종회의원 스님들이 주장하듯이 비구니 호계위원 진입이 율장 정신에 위반이라고 한다면 '중앙종회가 율장이 있는가'라고 되묻고 싶다.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은 여성의 출가를 허용하는 과격해 보였다. 많은 율(律)을 살하신 것도 승단의 화합과 철저한 수행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그 자구애에 매달려 율을 적용하기보다는 정신을 유지·존중하면서 종단을 발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구니 호계위원 진입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위로 올려야 한다. 비구니 승가는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았을 때 사부대중의 인정을 받고 위상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비구니 종회의원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해 6000여 명의 비구니 스님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올바른 종책 개발과 의정활동으로 사부대중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 문제의 발언은 무엇이었나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제194차 임시회에서 이뤄진 종헌 개정안 축조심의 중 호계위원 자격에서 '비구'를 '승려'로 개정하는 것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고, 이 와중에서 모 비구 스님에게서 반대 발언이 나왔다.

"호계위원에 비구니 스님을 포함하지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원로회의의 통과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율정정신에도 어긋난다. 그간 비구 호계위원으로 인해 비구니 스님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비구니 스님이 비구니 스님 사건을 다루면 해당 스님은 소문이 나서 조계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비구 스님은 비구니 스님을 보호해주지만 비구 스님은 비구니 스님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Advertisement for '영가천도의 중요성' (Importance of Eulgya-cheondo). Includes a large calligraphic character '命' (Ming) and text explaining the book's content and availability.

Advertisement for '12품 팔상탐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12-pum Pal-sang-tam-ju, its secret and miraculous efficacy). Lists 12 items and their benefits,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Sangso (음택) Pungsu's importance.

Advertisement for '영혼의 세계 (빙의)' (World of the Soul (Bing-ye)). Features a large title and detailed text about '영가천도' (Eulgya-cheondo) practice, including instructions and benefits.